

익산시,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25~30일, 물가·민생 안정 등 7개 분야 42개 대책 추진... 민생경제 활성화 '앞장'

익산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물가·민생 안정, 취약계층 돌봄, 교통·안전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7개 분야 42개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 직원들이 적극 동참한다. 시는 직원들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명절 전 지급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시청 구내식당 휴무 횡수를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2013년부터 매주 금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해 외부에서 점심을 먹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요일 추가 지정을 결정했다.

시는 명절 전까지 재정자금 1,132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시민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이로움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총 123명을 모집하고 있다.

시는 민생 안정과 더불어 명절 연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총괄반을 중심으로 △물가안정대책반 △재난재해대책반 △교통종합대책반 △악취대책반 △생활환경대책반 △도로대책반 △의료진료대책반 △상하수도대책반 △일반민원처리반 등 10개 반이 운영된다.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 등 필수 인원 50여 명이 근무하며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힘쓴다. 재택 근무의 경우에도 즉각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1

시간 내 거리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설 명절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돌봄에도 힘쓴다. 사회복지시설과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와 결식 우려 아동에게 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명절 당일 익산하늘공원(팔봉공설묘지)을 찾는 추모객이 불편 없이 성묘할 수 있도록 교통을 통제하고, 종합운동장에서 익산하늘공원까지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민생 회복을 이루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깊어진 설 연휴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대 산학연합력단지조성사업단 현판식

이장호 총장 "에너지 신산업 분야 세계 최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국립군산대학교 산학연합력단지조성사업단(단장 장민석)이 지난 21일 본격적인 산학연합력단지조성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은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 신재생에너지융합특성화관에서 개최되었고, 현판식에는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산학연합력단지조성사업단 입주기업협의체 회원이 참석하였다.



국립군산대학교 산학연합력단지조성사업단(단장 장민석)이 지난 21일 본격적인 산학연합력단지조성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Stop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판식에 참여한 이장호 총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산학연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장민석 산학연합력단지조성사업단장은 "국립군산대의 인재들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국립군산대 산학연합력단지 조성사업단은 향후 산학연합력단지조성사업단 입주기업 지원, 기업과 학생이 참여하는 기업형 캡스톤디자인, 산학협력 프로그래밍 및 산학연계 교육과정 등을 운영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제3일반산업단 폐기물처리 시설 부지 매각재검토해야”



장경호 의원
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계획에 대해 정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023년 9월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익산시가 개정 법률을 적용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익산시는 추정가액 155억원의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며 연간 2만톤이상 배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폐기물 발생량 자료가 2021년 기준 작성했으며, 특정 업체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폐기물 발생 수치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현재 휴업상태에 있으며, 휴업기간동안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익산시가 제출한 자료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2021년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에 대해 "소각시설이 없는 업체에서 4만톤 이상의 소각시설 바닥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는 자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런 부정확한 자료 바탕으로 한 매각 추진은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전에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는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면적이 50만㎡이상이면서 연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인 산업으로 판단하고 폐기물시설 부지 매각 결정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267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불명확한 자료를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쌀 재배 강제 감축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채택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 대표 발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의 영농권·재산권 침해”

익산시의회는 지난 12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 폐기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농민 경작권 보호와 소득 보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통해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겠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 영농권을 침해하는 반농민적 정책으로 이는 반드시 폐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대소농을 가리지 않고 모든 쌀 재배면적 11%를 의무 감축하도록 한다”며 “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물량 우선 배정과 초과 감축 시 기본직불금을 추



박철원 의원

가 지원할 계획이지만,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와 다르며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강압적 상황에 내몰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어 “지역별 감축 면적을 관리하는 지역자치단체 또한 벼 재배면적 의무감축 초과 달성 시 공공비축미 배정과 농촌 개발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지만, 감축 목표 미달성한 시·도에는 기본직불금을 감액하고 공공비축미 배정을 줄어드는 페널티가 부여되어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억압적인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농업을 단순히 통제하는 산업이 아닌 국가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정부가 나서 농민들의 생존권과 더 나아가 식량주권 보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산시의회 건의문의 주내용은 △정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농민의 경작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과 농업경쟁력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원,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송부하여 조속히 정책 폐기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설 명절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

농장에 차량·사람 출입 통제·방역수칙 준수 등 당부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설 명절 기간에 축산농가는 물론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가축질병 유입 차단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성 질병은 기온이 내려갈수록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며, 발생 치사율이 높고 복구에 상당한 시일 소요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1종 국가 재난형 가축 질병이다. 지난해 9월 말경 강원도 동해의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이후 27건 발생했다. 예년에 비해 발생 시기가 약 2개월 앞당겨진 만큼 정부는 전국적으로 농장 점검 등 발생 및 전파 차단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 역시 매개체 전파 위험성을 감안해 명절 전후 농장에 차량과 사람의 출입 통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24년 경기, 강원 및 경북 농장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1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야생멧돼지에서 병원체를 발견하지 못한 지역 농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 차량 등 전파 요인에 대한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군산시 동물정책과장은 “군산시를 가축전염병 청정구역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시민과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행동 요령으로는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부 소독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심축 발생 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보건소, 설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

군산시보건소가 설 연휴 기간 시민들과 귀성객들을 위한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 운영토록 했다.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응급진료기관 현황 점검,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안내 및 운영현황 모

니터링 등도 담당한다.

먼저 연휴 기간 중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은 상시 응급환자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평소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게 했다.

또한 보건지소·진료소, 병·의원 및 약국 306개소는 날짜별로 운영하여 설 연휴에도 누구나 불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실시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중 진료에 대한 사항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 군산시청 및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지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